무주군, 재정건전성 양호

순자산 전년 대비 660억6400만원 증가 재정 상태 3.6% 개선

무주군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재무회계 및 기금회계 등 회계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부채비율(우발부채)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 분석결과에서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60억6천4백만 원이 증가해 재정 상태가 3.60% 개선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일반회계1, 특별회계 8)를 포함한 예산회계 결산 액은 세입 5,812억7천2백만 원, 세출 4,551억9천1백만 원으로 1,260억 8천1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013억6천6백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61억4천8백만 원을 제외한 185억6천6백만 원(일반회계 15,599, 특별회계 2,966)이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확보로 인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세출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3억9천7백만 원이 증가(5,812억 7천2백만 원)했다.

기능별 세출 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등 주요 사업 분야 순으로 집행됐다.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11개 기금 운영을 통해 221억8천6백만 원을 조성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주요 사업에 9억8천3백만 원을 집행해 연도말 조성 액은 158억2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은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실행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오는 8일부터 5월 2일까지 25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와 군 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또한 면밀히 분석·보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이월·불용액 비율을 평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에서도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적극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 대통령직 인수위에 정책사업 반영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4일 정운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반영을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을 통해 전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군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을 통해 전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새정부의 전북도 공약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으로 분지형 고랭지로 특색있는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정원형 약용 식물단지 조성으로 약용식물 원료·체험 기반을 구축, ▲지덕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지정으로 산악관광 진흥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산림 복합테마파크 조성, 구연동화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자의 투자촉진, 규제완화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국내 유일의 고원지대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진안군이 가진 산림자원을 활용이 중요하다"며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전북도와 협력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착수

무주군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은 계곡수와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원지의 용수 확보 및 수질 문제, 노후관로로 인한 잦은 누수 등으로 출수불량 문제 등이 잦은 마을에 대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무풍면 덕지리(덕동)와 금평리(백학), 설천면 두길리(방재, 벌한) 4개 마을에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식수원 개발 등 개량공사를 이달 중 착공해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휴지 355필지 대부계약 신청·접수

진안군, 해당토지 읍·면사무소 대부계약 체결 상담센터 상시 운영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355필지(177천㎡) 에 대한 재산 공개를 시작했다.

공개 내용은 유휴지의 토지소재지 및 면적으로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군유지는 총 34,119필지(40,299천㎡)로 행정목적 및 기능으로 관리되는 행정재산은 31,017필지(38,506천㎡)이며, 그 외의 일반재산은 3,102필지(1,793천㎡)로 이중 경작이 가능한 유휴재산 355필지다.

유휴지란 일반재산 중 현재 대부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휴경지로, 군은 군민들에게 경작 등이 가능하게 해 농업소득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증대하고자 지난 2019부터 연 2회 재산공개를 실시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휴지 정보공개를 통해 신규로 296필지(1600만원)에 대해 대부계약을 진행하는 등 총 5600만원(869건)에 달하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군은 대부계약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갱신 등 민원업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민 안전 최우선 장수군 만들겠다"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철저한 예방·대응 공약 발표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양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내용은 ▲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해 시설 적극 차단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강화와 재난 안전기금 조성 확대 ▲산불 및 환경 감시 확대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로드킬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양 부위원장은 특히 "군민이 살아가는 자연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장수군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개발이익을 따지지 않고 원천봉쇄에 가깝게 위해 시설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도의원 시절부터 여러 위해 시설의 진입을 차단해 왔지만, 최근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주민의 안전과 환경이 최우선 되지 않는다면 적극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안전기금 조성을 확대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군민의 기본 권리이자 최우선 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군민들이 어떤 상황에도 장수군을 믿고 마음 편히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밭작물 공동경영체 평가 과수 전국 1위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종합평가결과 무주농협(사과)이 1위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1년(2년) 사업을 시행한 전국 18개소의 공동경영체 평가 결과 무주농협(사과)이 우수경영체로 선정됐으며, 과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태풍·호우·냉해 피해 및 고령화로 인한 농가 수 감소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주농협의 2021년 조직화 농가 수는 2019년 대비 약 27%, 총 사과 취급액은 약 20% 증가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률이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해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한다. 무주농협은 사과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받아 농가를 조직화하고 경영체 경쟁력을 강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통과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군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장수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수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래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여성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무주군보건의료원이 갱년기 여성을 위한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성들이 폐경기 전후로 겪는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 완화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적 접근 방식을 이용한 건강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관내 40~60대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선착순 2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화 또는 무주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의약 건강교실은 한의사와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외부강사들이 강사로 초빙된 가운데 실시되며, 건강기초검사, 한방치료, 요가체험, 갱년기 우울증 검사 및 웃음치료 강의, 한방침 및 한약제 처방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